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테살 5, 13)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신장 이식 수술 연달아 성공



장기이식팀(성진식, 오정우, 김광용, 김영진)이 최근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임에도 우리 병원은 벌써 간 이식 수술을 13차례 성공하며 높은 의술을 증명하고 있는데, 신장 이식 수술 역시 지난 2022년 중순에 처음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번 수술까지 연달아 성공시키며 수도권 대형 병원에 버금가는 수술 실력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수혜자인 A 씨(30대, 여)는 2019년에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신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A 씨는 한 번에 4-5시간씩 걸리는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씩 받아야 했는데, 직장 생활과 투병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뿐더러 투석 치료가 신장의 역할을 완전하게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신장 이식으로 새 삶을 얻은 A 씨는 수술 후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성진식 과장은 “송고한 희생과 나눔 정신으로 새로운 생명을 전하신 공여자와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공여자의 가족분들의 결심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최대 규모의 인공신장실을 갖춘 우리 병원은 투석 전문가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 증상에 따른 맞춤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이식 등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시설을 구축하여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공신장실 소개 |

성가롤로병원 인공신장실은

전남 동부지역 최초로 개설되어 올해 개설 33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전남 최대 규모인 180여 평의 공간에 총 39대의 혈액투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넓고 깨끗한 혈액투석실과 별도로 분리된 복막투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환자를 위한 음압투석실과 중환자를 위한 중환자투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경험을 쌓은 투석전문의와 경력 간호사로 구성된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의 안정된 투석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오전 7시 ~ 오후 5시 30분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 * 응급투석 : 365일 언제나
- * 문의 : 인공신장실 061)720-6260~1



인공신장실



중환자투석실



음압투석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도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본 평가는 총 175개 기관(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요양병원 호스피스시범사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병원은 법적 기준 준수, 기관 운영의 적정성, 생애 말기 삶의 질, 치료 돌봄에 대한 만족도 등의 7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부여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말기 암 환자들이 남은 삶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병원 호스피스병동은 2016년 11월부터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완화의료도우미)을 운영함으로써 하루 10여만 원의 간병비를 4,000여 원에 이용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한 CS2000 운동 전개

우리 병원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CS2000’ 운동에 돌입했다. CS2000 TF팀이 주관하는 CS2000 운동은 매일 2,000명의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새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중점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신환 및 초진 환자의 진료 편의를 위한 진료 일정 확대 △인터넷으로 예약 가능한 진료과 및 진료 일정 확대 △고객 의견 청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 △직원 교육을 통한 친절도 향상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 정비 등이 있다. 박명옥 병원장은 “CS2000 운동은 고객 만족과 더불어 우리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며 “진료부와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생명 나눔 헌혈 행렬 이어져

우리 병원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세계 병자의 날(2.11)을 기념하여 2월 6일 현관 헌혈 차량에서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병원은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노력으로 연 2회 이상 헌혈 행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어 방문한 임직원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다.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우리 병원은 1월 4일 구례읍 소재의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은 2004년 개원하여 현재 84실 164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암 요양 및 노인 요양을 전문으로 한다. 또한, 감염병실 운영으로 다제내성균 감염질환 환자도 수용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욕창 전문 병원 운영을 준비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병원은 환자 의뢰 및 회송, 진료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의학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박명옥 병원장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 김현숙 이사장은 “성가롤로병원과 우리 병원이 모두 환자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인 점에서 이번 협약이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전문의 초대석

가치



응급의학과 김재혁 센터장

약력

경희대학교 의학과 학사
가천대 길병원 인턴 수련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수련
목포한국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과장
목포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
국립중앙의료원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
대한재난의학회 기획이사
대한화학소상연구회 감사
현재 성가톨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전문분야

응급의학과

대략 1년 전쯤 대구에서 4층에서 낙상한 여중생을 응급실에서 수용 하지 않아서 사망하였던 사례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주제로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심정지 환자가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 없어서 멀리 있는 응급실로 이송된 것이 기사화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중증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의 현실은 어떨까? 전남의 상황은 전국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율이 가장 높으며,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최종 치료의 비율은 최하위의 순위에 그치고 있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대학병원조차도 필수 의료의 위기 상황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물리게 되는 응급실은 이러한 환자들의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 어렵지만 한 상황이다. 결국, 많은 응급실에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아예 응급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속칭 '입구턱'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병원과 글을 쓰고 있는 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환자를 수용하였다가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전국에 중증 응급환자들이 많은 응급실에서 입구턱을 당하는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조직 내에 고름이 차서 피부로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수술적(?) 치료에 준하는 다소 과감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가지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교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환자들 중에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기분이 좋은 환자들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을 것이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부의 문제가 조정되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테니까. 지금 이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의사들은 아마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내부에서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유명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나, 공적인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모두가 동일할 것이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여러 직종의 근로자

들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이다.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보람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일부에서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인정과 보람을 얻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빠진 사람은 행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일터에서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금은 그 색깔이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귀한 물건으로 대접을 받아왔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귀족들의 장신구로 활용되었으며, 때로는 화폐와 비슷하게 통용이 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귀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광을 찾기 시작했다. 금광을 찾아서 많은 양의 금을 찾게 되면 엄청난 부를 거머쥌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던 시절, 황무지와 같은 땅을 찾아 헤메면서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땅을 파고, 파고, 또 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목숨도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적지 않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곳에 그들이 추구하는 큰 가치가 묻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금광을 찾기도 하였으며, 금광을 찾던 도중 현시대의 금과도 같은 석유도 발견되었을 거라는 설도 있다.

우리는 금보다 소중한 것이 널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처럼 금보다 귀중한 생명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작용해 왔다. 의료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선,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낮은 수가, 과중한 책임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그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생명의 가치는 사회가 진보할수록 더욱 높아져 왔으나, 오히려 이러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오히려 두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선뜻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담을 안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은 마치 위험을 무릅쓰고 금광을 캐던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병원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적절히 부응하였을 때, 우리는 보다 행복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건강증진센터 신년 이벤트

종합검진 : 기본형 30% 할인(신체계측, 체성분, 문진, 안과, 청력, 심전도, 혈압, 흉부촬영, 폐기능,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등 포함)

PET-CT 검사 : 전신 80만원 / 몸통 60만원(한 번의 검사로 전신의 암을 진단)

암 유전자 검사 : 30% 할인(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암의 취약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전 요인 검사)

추가 검사항목 :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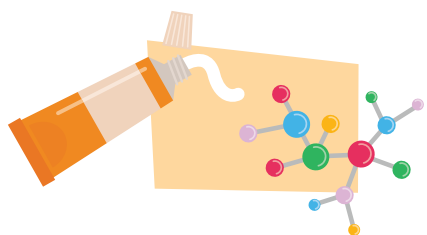
기간 : 1월 2일(화) ~ 3월 29일(금)

예약 문의 : 061)907-7200



약제부에서 알려 드리는 재미있는 약 이야기

덱스판테놀(dexpanthenol)



1. 약리작용

덱스판테놀은 판토텐산의 유도체로 상처 및 기저귀 발진 등의 피부질환의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거나 판토텐산의 보급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판토텐산은 비타민 B5의 다른 명칭으로, 덱스판테놀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판토텐산으로 전환된다. 덱스판테놀은 피부막을 잘 투과하며 상처 부위 등에서 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외용제로 많이 사용된다. 덱스판테놀 외용제는 상처 부위를 재생, 치유하며 보습 및 보호 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항염효과가 있어 피부염이나 궤양 등의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판토텐산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생성과 지방산 및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을 돕는 조효소의 구성성분이다. 따라서 지방, 탄수화물 및 단백질의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며 판토텐산의 결핍 또는 보급이 필요한 경우 주사제를 통해 보급하게 된다.

2. 효능 · 효과

덱스판테놀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흉터치료제, 소독제, 다른 종류의 비타민 등에 복합되어 사용된다. 상처, 화상, 기저귀발진, 습진, 피부 궤양 등의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판토텐산의 공급을 위해 사용한다. 제품의 예

로는 비판텐®, 덱스테놀® 등이 있다.

단일제의 경우 제형에 따라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복합제의 경우 복합되는 성분 및 제형에 따라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다. 단일제, 복합제와 상관없이 주사제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 외의 모든 제품들은 일반 의약품이다.

3. 금기

- 덱스판테놀 단일제 연고는 감염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환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덱스판테놀 단일제 주사제는 혈우병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주의사항

- 덱스판테놀 단일제 비강분무제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개봉 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덱스판테놀 단일제 주사제는 고혈압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투여를 중단한다.
- 모유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수유부의 경우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5. 부작용

- 덱스판테놀 단일제 연고 투여 시 드물게 알레르기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덱스판테놀 단일제 주사제 투여 시 피부 가려움증, 붉은 반점, 가벼운 혈압 저하, 고령자의 경우 약간의 흥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드물게 구토, 설사, 복통 등도 나타날 수 있다.

- 출처 :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 - 약제팀 김수완 약사

일본교리

동정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는 때가 차 오는 여명에 우리에게 알려진다. 하느님의 아들이 강생하시기 전에,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잉태를 위한 주님 탄생 예고 때,(87)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성령 강림 때에 마리아께서 바치신 기도는 성부의 자비로운 계획에 탁월하게 협력하는 기도이다.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기다려오신 승낙은 하느님의 비천한 여종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전능하신 분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전 존재를 바쳐 응답하신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곧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니, 우리도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겠다는 기도이다. [가톨릭 교리서 2617]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소개 |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호스피스는 사랑입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이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 돌봄입니다.

●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환자가 생의 마지막 과정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적 고통을 함께 나누며 통증을 완화 시켜주고 영원한 삶을 편안히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봉사으로써 도와드립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대상자

- 현대의학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 암 환자
- 통증 및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 주치의가 호스피스완화医료를 추천하는 환자

● 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 통증 및 증상관리
- 상담 서비스
- 영적 지지 서비스
- 임종 돌봄 서비스
- 요법서비스(미술, 음악, 원예, 차 요법 등)
- 사별 가족 관리 프로그램(기도 모임, 야유회, 위로 편지 발송)
-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 돌봄 활동(미용, 침상 목욕, 마사지 등)
- 이벤트 행사(생일 축하, 호박죽 제공, 어버이날 행사, 성탄 등)

● 시설안내

1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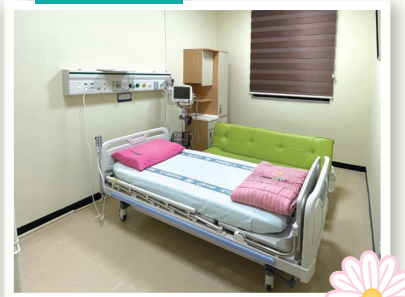
3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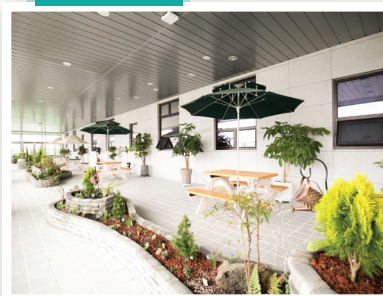
기도실



임종실



테라스



24시간 전화상담 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061)907-7560, 7530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시행

간병비 부담감소 : 1일 4,900원 부담

가롤로 퀴즈

■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은 이번호 병원보 속에 있습니다.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파리바게뜨 빵 교환권(1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직원식당에 마련된 응모함에 매월 말일까지 넣어주세요.

1. 우리 병원 장기이식팀은 지난 2022년 중순에 처음 시행한 ○○이식 수술을 최근 또다시 성공시키며 수도권 대형 병원에 버금가는 수술 실력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2. 건강증진센터에서 신년 이벤트로 할인을 제공하는 항목 중 한 번의 검사로 전신의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3. 우리 병원 보건의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도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속 ○○○ 등급을 획득했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기사는 무엇인가?
① 텍스판테놀
② 바삭하고 고소해 자주 입맛 당기는 부각과 튀각
③ 직원들의 생명 나눔 헌혈 행렬 이어져
④ 세계 병자의 날 기념 차 나눔 행사

2월호 가롤로 퀴즈 정답

- 1.
- 2.
- 3.
- 4.



수신 : 홍보팀

소속 :

직종 :

성명 :

직통번호 :

가장 좋았던 기사 및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식단

바삭하고 고소해 자꾸 입맛 당기는 부각과 튀각



소박한 튀김 요리지만, 부각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찹쌀풀을 발라 말린 다음 기름에 튀기는 수고를 해야 맛볼 수 있는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이다. 바삭하면서도 담백해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고 고소한 맛이 자꾸만 입맛을 당긴다.

부각과 비슷한 것으로는 튀각이 있는데, 말린 재료를 기름에 튀겼으니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부각과 튀각은 만드는 방법이 엄연히 다르다. 부각은 채소나 해조류를 말릴 때 찹쌀풀을 바르고, 튀각은 해조류나 채소를 그대로 말려 기름에 튀긴다. 그래서 튀각보다는 찹쌀풀을 발라 튀긴 부각의 식감이 조금 더 풍성하게 느껴진다. 평범한 식재료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어진다. 지방이 식재료의 맛을 확 끌어 올려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삭한 식감은 먹는 재미까지 더해주니 튀김 요리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튀김 요리의 최대 단점은 열량이 높다는 것인데, 특히 육류나 생선을 튀기면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확률이 높아 건강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다. 부각과 튀각은 튀김 요리지만 열량이 낮은 편이라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김부각 만드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부각 재료인 김은 구멍이 없고 도톰한 것으로 골라야 찹쌀풀을 바를 때 찢기지 않는다. 찹쌀풀은 너무 묽으면 풀이 묻어나지 않고 반대로 너무 되면 딱딱하게 되므로 걸쭉한 농도로 섞야 한다. 그래야 부각을 튀겼을 때 눈송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하얗게 일어나 보기 좋다.

1.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 풀을 쏜다. 여기에 간장 또는 액젓을 넣고 간을 맞춘다.
2. 김 한 장을 밑에 깔고, 풀칠을 하고 김을 한 장 맛볼 인다. 그 위에 다시 풀칠하고 통깨를 뿌려서 햇볕 또는 식품 건조기에 말린다.
3. 말린 부각은 170℃ 정도의 고온의 기름에 넣어 재료가 살짝부풀어 오르면 재빨리 건져야 한다.

<다시마 부각 만드는 방법>

말린 다시마는 주로 국물을 낼 때 활용하는 만큼 요리에서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튀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튀기는 과정을 거쳐 튀각이나 부각으로 만들면 식탁 위에서 단연 빛나는 주인공이 된다.

1. 말린 다시마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상태로 튀겨서 튀각을 만들거나 찹쌀풀을 바른 다음 말려서 기름에

튀겨 부각으로 만들 수 있다.

2. 튀각은 말린 다시마를 손질하고 튀긴 다음 설탕이나 소금을 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다.

<감자튀각 만드는 방법>

1. 감자를 아주 얇게 편으로 썰어서 물에 3~4시간 동안 담가 놓는다.
2. 물에서 건진 감자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다음 하나 하나 넣어 말린다.
3. 투명하고 바삭하게 마르면 180℃로 달군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다.
4. 튀긴 감자에는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뿌리기도 한다.

<당근 튀각 만드는 방법>

당근은 수분 함량이 전체의 약 90% 정도라서 튀기기 어려울 것 같지만 건조 과정만 잘 거친다면 훌륭한 부각으로 탄생할 수 있다. 당근 부각은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당근 향의 묘한 매력이 있다.

1. 소금으로 간한 찹쌀풀에 당근을 담갔다가 꺼내서 잘 말린 다음 튀긴다.
2. 당근처럼 수분이 많은 식품은 찹쌀풀을 묻혀서 한번 찐 후 다시 한번 찹쌀풀을 묻혀 찜서 튀긴다.

- 출처 : 대한영양사협회
- 영양팀 이선애 영양사

가롤로퀴즈정답 & 당첨자(5명)

305호 1월

방유신 | 6A 병동 황숙남 | 6A 병동
김은진 | 6B 병동 임윤미 | 5B 병동
강민혜 | 심혈관중환자실
*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약제팀입니다.

1. 1월 2일 시무식에서 선포한 매일 2,000명의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자는 운동의 이름은 무엇인가? CS2000
2. 2023년 Q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서는 어디인가? 외래간호팀
3. 뇌에 피를 공급하는 일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의 기능장아가 발생하는 질환을 무엇이라 하는가? 뇌졸중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기사는 무엇인가?
① 2024년 시무식 및 CS2000 선포식 개최
② QI 경진대회 성황리에 개최
③ '더 오래 신선하게' 똑똑한 과일, 채소 보관법
④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YouTube

수요강좌 유튜브 보러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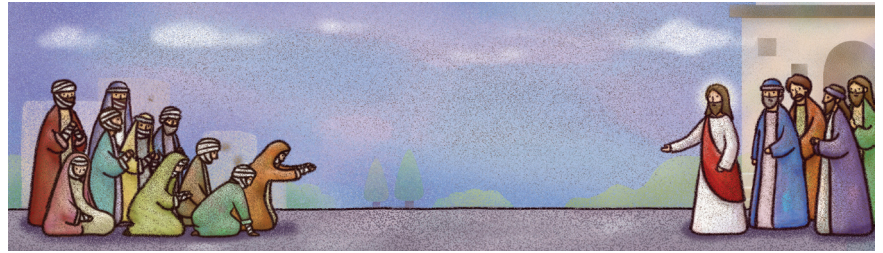
복음 묵상

| 연중 제6주일 |

내리사랑

평화를 빕니다. 지난달 10일, 교구에 경사가 났습니다. 새로운 사제 9명과 부제 3명이 탄생하였기 때문이죠. 6년 전 서품식이 있던 날, 그날의 저를 있게 한 모든 분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내리사랑에 울컥했습니다. 항상 저도 서품을 받았던 첫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리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리사랑'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리사랑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전에서 '내리'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뜻은 ①위에서 아래로 ②잇따라 계속 ③사정없이 마구 하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내리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잇따라 계속하는 사랑, 사정없이 마구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부모님이나 웃어른께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리사랑은 제가 죽을 때까지 효도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그 사랑을 갚아드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되어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되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사랑은 헤아릴 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보다 더 큰 울창한 고목 같기 때문입니다. 아름드리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에 제가 사랑을 드린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부모와 같은 사랑을 드릴 수 없기에 부모님의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잇따라 계속,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정없이 마구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의 자식이 사랑을 물려받아 내리사랑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내리사랑을 입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에 덕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받았고, 내가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을 받았으며,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빔쟁이입니다. 그 사랑을 되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갚는다고 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이 교구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내리사랑을 받았고,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받았고 덕을 입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기도와 사랑을 받았으며,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리사랑에 부족한 저 자신이 여러분의 사랑을 되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대신 평생에 걸쳐 제가 만나야 할 신자 분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고자 다짐해 봅니다.

마르코복음(140-45)에 등장하는 나병환자 또한 주님의 은덕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자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내 자식이 아파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병환자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은 갚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진정 저희를 구원하시며 내 마음을 잃어주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내리사랑은 곧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고받음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봉사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냐고요? 예수님의 그 가엾은 마음으로 내리사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온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고 잇따라 계속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사정없이 마구마구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내리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봉사가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 장현욱(비오) 신부

신임 진료과장 소개

응급의학과
이상훈 과장



전문 분야 : 응급의학과

약력 : 인제대학교 의학과 학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수련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레지던트수련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진료교원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하며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정진하며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관리규정에 의해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 금 주 :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 700-107-500533

광주은행 : 1127-020-225740

농 협 : 317-0005-2620-81

■ 후원문의 | 재무경영팀 ☎ 061)720-6420~1

■ 후원 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법인 포함)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4. 1. 1 ~ 1. 31)

강성일, 강은진, 김상순, 김영진, 김영휴, 김현영, 김현종, 나재형, 김성례, 김승만, 우초윤, 박선미, 이기재, 임미연, 최현순, 추태선, 성우메디칼, 편안한김약국, 효성의료기

익명 3명, CMS약정자 33명

*이 외 매월 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가롤로병원 외래진료 안내

대표전화 061)720-2000, 종합안내 061)720-2500, 방사선 암 치료 061)720-6900

진료일정은 2024년 2월 1일 기준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과		과장명	전문 진료 분야	진료일 오전 / 오후	진료과	과장명	전문 진료 분야	진료일 오전 / 오후			
가정의학과 720-2160		최현정 황신혜	일반내과질환, 만성피로, 갱년기질환, 건강증진, 가족주치의 치료, 항노화 일반내과질환, 만성피로, 건강증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인예방접종	월수금/화목 화목/월수금	신경과 720-2170, 2179	조은미 신대수 박수신 김진석 강종수	두통, 뇌졸중, 치매, 어지럼증, 파킨슨병, 일반신경과질환	월화수금/월화목 월화목금/월수목 월화수목/월수금 월목금/월화수금 월수/월화목금			
건강증진센터	종합검진 907-7200	박병록	선택정밀건강진단 : 소화기, 심혈관, 폐질환, 뇌, 갑상선, PET/CT, 암정밀, 여성·남성 정밀검진 특성화 MDCT : 특성화기본, 폐·심장, 뇌·경동맥 추가선택검사 : 초음파, 골밀도, MRI, CT, PET/CT	월~금		신경외과 720-2140	임병찬 김성현	뇌혈관질환, 일반신경외과질환 뇌혈관질환, 일반신경외과질환	월목/월금 화수금/화		
		한상돈 정종승 최현정 황신혜 박진경 노기서	건강진단 초음파 종합건강진단 전반 종합건강진단 전반 종합건강진단 전반 건강진단 위·대장 내시경 건강진단 초음파·판독	월~금 월~금 월~금 월~금 월~금(오전만) 월~금	영상의학과 720-6118	전동권 주정현 정태석 김영민 이상민 이승욱 김한준	근골격영상의학, 유방영상의학, 심장혈관영상의학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복부영상의학 흉부영상의학, 유방영상의학 인터벤션영상의학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복부영상의학	월~금 월~금 월~금 월~금(오전만) 월~금 월~금 월~금			
	국가검진 907-7100	김현실	일반건강진단 전반(건강보험공단검진)	월~금/월화수금		외과 720-2270	김영진 김태균 성진식 송영주 김광용 송 옥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위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외과질환 간담체, 위, 내시경갑상선수술, 복강경수술, 일반외과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양성질환 위암, 복강경수술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외과질환	화 수금 월목 화목 화금 월수		
내과	감염내과 720-6152	정영곤	감염질환, 불명열, 여행의학, 성인예방접종	월~금/월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센터 720-2070		김재혁 김원 김지주 김철성 노재훈 노종갑 박민우 성희용 오민석 이두환 이상훈 이정주 이청조 최인철	응급의학 (24시간 진료)	전일		
	내분비내사 내과 720-6193	김정민	당뇨병,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질환	월~금/월화금			고압산소치료센터 720-6041	김재혁	고압산소치료 (가스중독, 갑압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전일	
	소화기 내과 720-2110	김호동 김도현 황유정 진석재 명형준 신혜영	간질환, 위장질환, 내시경 간질환, 위장질환, 내시경, 간담도질환 간질환, 위장관질환, 내시경, 간담도질환, 담도내시경 소화기내과질환 소화기내과질환 소화기내과질환	화목 화목 월목 월금 수금 월수		이비인후과 720-2210		최지영	두경부종양, 음성질환, 비부비동염, 중이염, 어지럼증, 소아이비인후과, 난청 비염, 축농증, 부비동 내시경 수술, 음성질환, 양성종양, 어지럼증, 소아이비인후과, 난청	월수금/월화수금 월화목금/월목금	
		순환기 내과 720-6200	조장현	관상동맥질환(심장혈관 중재시술), 인공 심장박동기, 심근심낭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조기세포치료법, 심부전증, 부정맥, 고혈압, 실신, 이상지질혈증				월화/화목	재활의학과 907-7400	김재홍	근골격계, 재활치료, 언어재활, 연하장애재활
			김수현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부정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화수/월수	정신건강의학과 720-2290		강 일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치매, 일반정신과질환
	이민구		관상동맥질환(심장혈관 중재시술), 말초혈관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부정맥, 고혈압, 실신	월목금/목		정형외과 720-2130	정우철 김세진 함동훈			고관절, 슬관절, 스포츠 손상,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경수술 견관절, 주관절, 스포츠손상, 관절경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요추 및 경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외상, 감염, 종양, 척추 측만증,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강직성척추염, 무릎발목관절 질환, 골절 및 외상 전문 척추질환(요추 및 경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외상, 감염, 종양, 척추 측만증,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무릎관절 질환 및 손상(인공관절 치환술, 관절 보존수술, 관절경 수술, 스포츠 손상), 외상, 수부 질환 및 미세재건 수술	화수/수금 월금/월목 화목
	김재민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고지혈, 심장판막증	화금/월화			진단검사의학과 720-6243		김영휴	혈액학, 수혈의학, 임상화학, 면역혈청, 임상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학	월~금
	김경환	관상동맥질환(심장혈관 중재시술), 말초혈관질환, 심부전증, 고혈압, 실신, 이상지질혈증	수금	치과 907-7230				마주리	일반치과 진료, 치주치료, 임플란트, 보철치료	월~금/월수목	
	임영민	부정맥, 전극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및 자동제세동기 삽입술, 실신, 심부전증, 심방세동 및 조동, 발작성 빈맥	월수목/월금			피부과 720-6270		최달용	일반피부질환	월~금/월화목	
	신장내과 720-6167	김병기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만성신부전, 투석치료, 전해질 이상			수목/화	핵의학과 720-2191	허영준	순환기핵의학, 뇌신경핵의학, 소아핵의학, 종양핵의학, 비뇨생식핵의학, 내분비핵의학, 근골격계핵의학	월~금	
혈액종양내과 720-2150	김민지	혈액종양질환	월~금/월수목	호스피스완화의료 907-7530	최달용 황신혜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목(오후만) 월~금/월화수금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720-2189	이기동 김건우 임정환	호흡기질환, 폐결핵, 폐암, 폐렴, 간질성폐질환, 중환자, 천식 호흡기질환, 천식, 비염, 두드러기, 약물·음식물 알레르기, 면역치료, 만성기침, 아토피피부염 호흡기질환, 천식, 폐결핵, 폐암, 폐렴, 중환자	월화목 월수금 월화목금/월화금	심장혈관흉부외과 720-2260 * 금 외래문의	이원웅 김성룡 오정우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질환, 하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수술 폐, 식도암질환, 중격동질환, 기흉, 최소침습적 폐암수술 말초동맥질환, 정맥질환(하지정맥류), 동맥류조형수술, 흉부외상, 손다한증	수 목/월목 월화수목/화				
마취통증 의학과 통증클리닉 720-6316		김명원 김대희 김밝네 서동학	통증치료, 마취 통증치료, 마취 통증치료, 마취 통증치료, 마취	전일							
방사선종양학과 720-6900		최치환	방사선 치료	월수목/월목							
병리과 720-6220		이영직 김영희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셸프렙검사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셸프렙검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720-2280		김건평 정세현	요로결석, 소아비뇨,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감염 요로결석, 비뇨기계종양,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감염	월~금/월화목 월수금							
산부인과 720-2230, 2239		나재형 강창구 김호준 최효성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여성암조기진단, 폐경기관리, 일반부인종양 진단 및 치료	화목금 월수금 월수금 화목금							
소아청소년과 720-2240		이천오 박병배	소아 내분비학 (성장장애, 성조숙증, 소아당뇨, 소아갑상선질환), 소아 신경학(뇌전증, 두통, 어지럼증, 뇌파검사, 뇌MRI), 소아 알러지 (아토피성피부염, 비염, 천식, 두드러기), 영유아 건강검진 소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위장관질환, 건강검진 및 영양상담	월~금 월~금							

심장혈관흉부외과
720-2260
* 금 외래문의